

## <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>

정윤아 (홍콩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)

### 2. 프란시스 베이컨: '명량한 절망감'을 표현한 위대한 화가

#### Francis Bacon (1909-1992)

영국 최고의 표현주의 화가로 칭송 받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.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불운한 세대인데가 유독 사랑하는 친구, 애인의 죽음을 여러 차례 목격하는 불행을 겪은 그의 삶을 반추하면 죽음의 공포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그의 작품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.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화가 스스로가 명명한 '명량한 절망감'이 있다. 어둡지만 어둡지 않고,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삶을 말하기 위한 다른 방식일 뿐이다.

#### 1920년대

베이컨 본인은 자신을 늦깎이 화가라고 말하곤 했으나,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일하는 가운데 항상 그림을 그리곤 했다. 1920년대 유화는 남아 있지 않으나, 당시 그려진 수채화를 통해서 그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.

#### 1930년대

1930년대 초반부터 그림에 집중하기 시작. 이 시기에는 특히, 피카소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과 초현실주의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제작하였다. 피카소의 목탄 드로잉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"십자가 책형 (Crucifixion, 1933)"으로 런던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. 그러나 이후 전시가 계속 혹평을 받으며, 시련을 겪는다. 이어진 심각한 혹평은 베이컨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, 이 때문에 그는 1937년부터 1943년 작품은 모두 베이컨 자신에 의해 소실되었다.

#### 1940년대

오랜 침체기를 거쳐, 1944년에 발표한 "십자가 책형 발치의 인물들을 위한 세 개의 습작들(Three Studies for Figures at the Base of a Crucifixion)"로 런던 미술계를 강타한다. 비명을 지르는 듯 괴기스러운 회색 생명체와 밝은 오렌지 배경이 대비를 이루면서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인상적인 작품이다. 이후, 렘브란트의 도살장 이미지,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미지 등 옛날 거장들의 작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미술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 시키기 시작한다.

#### 1950년대

이 시기에 베이컨은 1940년대에 시작한 주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드는 한편, 코끼리, 북극곰, 원숭이, 개,

부엉이 등 다양한 동물에서부터 주변 인물들, 풍경화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주제들에 관한 습작을 시작한다. 가장 많은 실험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.

### 1960년대

일반적으로 평론가들 사이에서 베이컨의 가장 전성기라고 평가 받는 시기이다. 색채, 구도 등 모든 면에서 베이컨 특유의 “신경계에 직접 호소하는” (들리츠) 듯한 작품 스타일을 완성한 시기. 특히, 베이컨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삼면화도 이 시기에 왕성하게 제작되었다.

2013년,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1969년에 제작된 삼면화 중 하나가 1,5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되면서 가장 비싼 화가로 기록되기도 하였다. 이 작품은 절친한 동료 화가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초상화가인 루시안 프로이트를 주제로 그린 것이라 더욱 화제가 된 바 있다.

### 1970년대

1971년, 파리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을 앞 둔 이틀 전,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조지 다이어가 약물과 알코올 과다복용으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한다. 이후, 베이컨은 죽음의 문제에 더욱 천착하면서 자화상에 집중하기 시작한다.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1960년대부터 단순화되기 시작한 배경이 더욱 간결해지고 보다 추상적인 내부 공간으로 진화한다.

### 1980년대

70대에 접어든 베이컨은 전 세계적으로 ‘영국이 낳은 최고의 표현주의 화가’로 칭송 받으며,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갖는다. 이 시기에도 그의 실험은 지속되었으며,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삶의 질감 같은 감각적인 부분과 ‘실재의 강렬함’, ‘사실의 잔혹성’ 같은 그만의 주제에 접근하고자 끝없이 노력한다.

### 1990년대

“분명 우리는 고깃덩어리이고 잠재적인 시체입니다. 정육점에 가면 동물 대신 내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의외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.” 라며 “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살피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생명을 잡아먹고 사는 삶에 깃든 모든 공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” 라고 말하던 그는 인간의 삶에 깃든 보편적인 공포를 담담히 표현하며, 에로스 와 타나토스를 오가는 인간의 본성을 평생 동안 표현해낸 위대한 표현주의 화가로 평가받는다. 1992년 4월 28일, 여행 중이던 마드리드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.